

‘씨름 괴물’ 김민재, 백두급 평정...통산 18번째 장사 등극

설날장사씨름대회 김동현에 압승...2년 연속 백두장사 등극 영암민속씨름단, 이은수·차민수 준우승...중량급도 저력 과시

영암군민속씨름단의 김민재가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다시 꽃가마에 올랐다. 김민재는 18일 충남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전에서 김동현(용인특례시청)을 3-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설날 장사 대회에 백두장사 타이틀을 얻은 그는 개인 통산 18번째(백두장사15회·천하장사3회)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5전 3승제로 치러진 백두장사 결전에서 김민재는 밀어치기 중심의 기술과 파워를 앞세워 첫판을 가져왔다. 두 번째 판에서도 밀어치기를 성공시키면 기선을 제압한 그는, 세 번째 판에서 김동현이 먼저 무릎을 꿇으며 3-0 우승을 완성했다.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김동현이 부상 투혼에 나섰지만 김민재의 벽은 높았다. 김민재는 앞선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하며 ‘씨름 괴물’의 면모를 보여줬다. 8강전에서 정창조(제주특별자치도청)의 부상 기권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한 그는 서남군(수원특례시청)을 상대로 뿌려치기와 들배치기로 2-0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민재는 이어 결승전에서도 내리 세 판을 가져오면서 지난해에 이어 황소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는 “동계 훈련이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 올해 목표는 백두장사 20회 타이틀을 얻는 게 목표다”며 우승 소감을 밝힌 김민재는 “경기를 지켜보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올 한 해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다 이루시길 바란다”고 씨름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백두장사를 배출한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이번 대회에 태백·한라급 준우승도 차지하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12일 여자부 예선을 시작으로 18일 백두장사 결정전까지 이어진 이번 대회에서 태백급(80kg 이하)에 출전한 이은수는 준우승을 기록했다. 4강과 결승까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갔던 그는 허선행(수원특례시청)과의 결정전에서 0-2로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체급의 문현우는 준결승까지 진출해 공동 3위에 올랐다. 한라급(105kg 이하)에서는 차민수가 결승에 올라 김부호(울주군청)와 치열한 승부를 펼친 끝에 준우승을 기록했다. 차민수는 결승에서 0-3으로 완패했지만 8강과 4강에서 힘과 기술을 앞세워 결승까지 진출하면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중량급 저력을 보여줬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18일 충남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 이하)에 오른 김민재가 황소트로피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1골 3도움’ 손흥민, 챔피언스컵 16강 문 활짝 열었다

레알 에스파냐에 6-1 완승

손흥민이 월드컵의 해 첫 공식전에서 1골 3도움을 맹폭하며 소속팀 로스앤젤레스(LA)FC를 2026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6강 문턱까지 데려다 놨다. LAFC는 18일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의 프란시스코 모라산 경기장에서 열린 레알 에스파냐와의 대회 1라운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에만 5골을 연사하며 6-1로 크게 이겼다. LAFC는 오는 25일 정오 휴민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비겨도 16강에 오른다. 손흥민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시즌의 첫 경기에서 1골 3도움의 변함 없는 공격력을 과시하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지난해 12월 수석코치에서 감독으로 승격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LAFC 사령탑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CONCACAF 챔피언스컵은 북중미 지역과 카리브제도 최고 권위의 대륙 클럽대항전이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열리트와 마찬가지로 우승팀은 2029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출전권을 가져간다. LAFC는 경기 시작 48초 만에 골 지역 오른쪽을 돌파하던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데니스 부앙가가 성공시켜 선제골을 뽑았다. 곧이어 손흥민의 ‘원맨쇼’가 시작됐다. 손흥민은 전반 11분 시즌 첫 도움을 작성하며 LAFC 추가 골에 기여했다. 역습 상황 후반에서 상대 위험지역 언저리까지 단독 드리블한 손흥민은 골 지역 정면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줬고, 마르티네스가 원발로 골대 왼쪽 상단 구석을 찰라 2-0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시즌 1호 골은 전반 22분 페널티킥으로 만들어졌다. 앞서 부앙가가 왼쪽을 돌파하다가 태클을 당했고, 주심은 수 분간 비디오판독(VAR)을 한 끝에 파울을 선언했다. 손흥민은 골대 왼쪽 하단 구석으로 슈팅해 골대를 갈랐다. 골키퍼는 방향을 잃어냈지만, 예리한 슈팅을 막지는 못했다. 전반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 손흥민은 도움 2개를 더 올렸다. 전반 24분 손흥민이 내준 공을 부앙가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추가 골을 넣었다. 전반 39분에는 손흥민의 컷백을 문전의 터머시 킬런



LAFC의 손흥민이 18일 열린 레알 에스파냐와의 2026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6강 1차전 원정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활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LAFC 페이스북 캡처>

이 힐킥으로 마무리해 5-0을 만들었다. 손흥민이 1골 3도움을 작성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28분에 불과했다. 산토스 감독은 후반 17분 손흥민을 포함한 3명

앤서니 김, 16년 만의 우승...우즈 “감동적”

LIV 골프 애들레이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교포 선수 앤서니 김(미국)의 16년 만의 우승에 “감동적이었”고 말했다. 우즈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000만달러)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앤서니 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앤서니 김은 지난 15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끝난 LIV 골프 애들레이드(총상금 300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PGA 투어 통산 3승의 앤서니 김은 2010년 4월 PGA 투어 휴스턴오픈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우승컵을 다시 품에 안았다. 1985년생인 앤서니 김은 1975년생 우즈의 뒤를 잇는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았으나 20대 후반 한창나이인 2012년에 갑자기 골프계에서 종적을 감췄고, 40살이 다 된 2024년 LIV 골프로 복귀했다. 지난해 인터뷰를 통해 “20년간 거의 매일 스

로 제 삶을 마감하는 생각을 했다”며 “PGA 투어에서 뒤흔 때와 술과 약물에 의존하느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렸을 정도”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아내와 딸을 만나 새 삶을 찾았고, 이번에 드디어 우승까지 차지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앤서니 김은 매우 재능이 있었다. 샷에서 우승할 때 2008년 라이더컵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다. 많은 것을 타고났으며, 원하는 대로 샷을 할 수 있었다”고 회상한 우즈는 “앤서니 김이 이후 골프를 멀리하고, 심지어 골프계를 떠났다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승까지 했다. 또 가족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니 매우 감동적이었”고 말했다. 2년 연속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불참하는 우즈는 자기 몸 상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즈는 지난해 10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작년 3월에는 왼쪽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우즈는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일 노력 중”이라며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시우, PGA 제네시스 세플러와 한 조

초청 선수로 김주형도 출전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000만달러) 1, 2라운드에서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동반 플레이어를 벌인다. PGA 투어가 1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1, 2라운드 주요 조편성에 따르면 김시우는 세플러, 잰더 쇼플리(미국)와 함께 1, 2라운드를 치른다. 19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7383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PGA 투어 시그니처 이벤트 중 하나다. PGA 투어 시그니처 이벤트는 총상금 2000만달러 규모로 1년에 8차례 열린다. 4대 메이저 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다음 등급으로 보면 된다. 지난해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 이어 2주 연속 시그니처 대회가 열린다. 상위 랭커 72명만 출전하는 이 대회에서 김시우가 세플러, 쇼플리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한 조로 1, 2라운드를 치르는 것은 최근 좋은 성적이 반영된 결과다. 물론 대회 타이틀 스폰서가 한국 기업이라는 점

도 있었으나 김시우는 올해 PGA 투어 5개 대회에서 준우승 1회, 3위 1회 등 ‘톱 10’ 성적을 세 차례 내며 페덱스컵 순위 7위, 상금 9위에 올라 있다. 이번 대회 주요 조편성은 김시우-세플러-쇼플리 외에 로리 매콜로이(북아일랜드)-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콜린 모리카와(미국), 크리스 고터럽(미국)-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J.J 스피븐(미국)으로 짜였다.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지난해 대회장 인근 산발 피해로 인해 토리 파인스 골프코스에서 개최됐고, 올해 다시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으로 돌아왔다. 올해 세계 랭킹 10위 이내, 페덱스컵 10위 이내 선수들이 모두 출전한다. 대회 호스트인 타이거 우즈(미국)는 2년 연속 불참한다. 2024년 2라운드 도중 기권한 우즈는 지난해에는 대회를 약 한 달 앞두고 모친상을 당한 여파 등으로 대회에 나오지 못했다. 세플러는 최근 19개 대회 연속 ‘톱10’, 9개 대회 연속 ‘톱4’ 기록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외에 김주형이 초청 선수 자격으로 나온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교향악단 404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아의 봄
일시 : 2026-03-2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전통과 형상회 : 헤온
일시 : 2026-02-27(금) ~ 2026-03-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